

제자: 법신은 우리의 수련을 지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사부: 수련하는 사람이 번거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의 법신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풀어주거나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또 당신에게 점화해 줄 수도 있다. 당신이 참으로 깨닫지 못할 때, 당신이 또 수련함이 괜찮다면 그는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끔 할 수도 있다. 당신의 수련층차가 모자라서 당신에게 그를 보게끔 할 수는 없지만, 그는 당신에게 소리로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대개 당신이 잠을 잘 때에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 이러므로 당신은 마치 꿈을 꾸 것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깨달음의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가 꿈속에서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정력(定力)이 아주 높으면 가부좌 중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늘 나를 보려고 생각한다면 역시 일종 추구, 집착이므로 역시 당신으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한다. 당신이 상관하지 않을 때, 장래에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남겨 놓아야 할 법을 이미 전부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강의할 때 사람들이 녹음하지 못하게 했다. 무엇 때문인가? 많은 사람이 신기함을 추구하고 있다. 스승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다, 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하며 그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면서 그리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에게 수련하라고 준 것은 바로 『전법륜(轉法輪)』으로 이 책은 체계적인 법이다. 내가 말한 여타의 것은 모두 『전법륜』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모두 보조적이다. 녹음한 후에 사회에서 전하게 되면 실속 있게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교란을 조성한다. 그 한 부의 『전법륜』은 낮은 데서 높은 데에 이르기까지 모두 체계적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만 지금의 사람을 상대하여 말한 것이다.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강조하겠다. 즉, 우리 수련하는 사람들은 전일(專一)을 중시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여러 가(家)의 장점을 취한다는 이 한마디 말은 속인 중의 언어이지 수련계의 언어가 아니다. 기술을 배움에 누구의 기술이 좋으면 그의 기술을 배우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층공간에서 볼 때 인류의 이치는 거꾸로 되어 있다. 인류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전부 반대로 된다. 당신이 보

라, 우리 이쪽은 대낮이나 저쪽은 밤이며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도 옳지 않을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이치를 말하겠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좋지 않다고 여기거나 혹은 누가 당신을 업신여겼다면 불편함을 느끼고 좋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이 고생을 좀 겪고 고통을 좀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당신이 보라.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같지 않다. 무엇 때문인가? 고층공간에 이르면 이 이치는 다 거꾸로 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당신이 인류사회에서 고통을 좀 겪음으로써 전세에 빚진 업력을 갚아 버린다면 당신은 더 높은 고층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심지어 당신은 당신이 생겨난 곳,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설령 제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한 생애 업력이 작아져 마난(魔難)이 적어진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빚진 업력을 갚지 않는다면 당신은 고층세계로 갈 수 없다. 바로 내가 이 이치를 말한 것처럼, 병 속에 더러운 것을 가득 채워 넣고 병마개를 꼭 틀어막고서 물속에 던지면 쿵 하고 해변에 가라앉는다. 만약 당신이 이 속의 더러운 것을 좀 쏟아내면 그것

있는가? 지금 중국에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우고 있는데, 국외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 이리하다. 왜 여러 사람이 모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부딪혔는데, 자동차는 망가졌으나 그는 확실하게 아무 일도 없이 아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으며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다. 왜 이리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채권자가 당신을 찾아와 빚을 받아 가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정말로 위험이 발생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한다. 만일 사부의 보호가 없다면 단번에 죽을 것이다. 죽는다면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나에게서 무수한 법신이 있는데 생김새가 나와 같다. 그는 다른 공간에서 당연히 크게도 변하고 작게도 변할 수 있다. 대단히 크게 변할 수도 있고 대단히 작게 변할 수도 있다. 그의 지혜는 완전히 열려있고 법력(法力)은 부처와 같으며 주체는 나 여기에 있다. 그들 자신은 독립적으로 처사하는 능력이 있으며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며 당신을 도와 공(功)을 연화하는 일부 일들을 한다. 사실 그는 바로 나의 지혜의 화신(化身)이므로 나는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나는 호주에 있지 않지만, 대법을 이미 당신들에게 전했으므로 법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

사부: 이 속에 그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사람의 수련,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다. 사람은 생생세세(生生世世)에 업력이 있으며 전생전세(前生前世)에 좋지 않은 일을 했으므로 다른 공간에 원수와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 그가 당신이 수련하려는 것을 안다면 와서 당신한테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수련을 시작한 사람은 생명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만일 사부가 없다면 당신은 수련 성취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며 절대로 수련 성취할 수가 없다. 오로지 사부가 당신을 돌봐주고 당신을 보호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 성취할 수 있다. 당신에게 어떠한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 성취할 수 있다. 수련하는 사람은 이전에 세계 각지에 다 있었으며 중국에 비교적 많았다. 많은 수도(修道)하는 사람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당신은 후에 도교가 출현해 제자가 많다고만 보지 말라. 그는 한 사람에게만 진짜로 전해 주는데, 그래야만 그에게 문제가 없도록 보증할 수 있다. 그는 다만 한 사람만 돌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가는 중생을 제도하는 소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듯 많은 사람을 능히 전수하고 제도할 수

은 조금 떠올라 오고, 좀 쏟아버리면 좀 떠올라 오며, 더욱 많이 쏟아버리고 마개를 막은 후에 보면 내리눌러도 내려가지 않으며 저절로 떠오른다. 마치 우리 사람들이 수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신체는 생생세세(生生世世)에, 다시 말해서 당신은 아마 매 일생, 매 일세(一世)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거나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해쳤거나 살생을 했다던가 하는 등등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더욱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빚진 업력을 갚아야 한다. 이 우주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는데,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며 얻으려면 곧 잃어야 한다.”는 것이다. 빚진 것은 갚아야 하며 금생에 갚지 않으면 내세에라도 갚아야 하는데, 확실히 이리하다. 지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우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며 모두 예전에 빚진 업력이 조성한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업력이 없다면 거리에서 걸어가도 누구든지 모두 당신을 보고 웃을 것이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마저도 주동적으로 당신을 위해 봉사할 것인즉 당신은 그야말로 편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그는 보증하고 인류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 사람은 업력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정화되지 못하면 영원히 수련해 올라가지 못한다.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이치와 마찬가지로이다.

사람이 고생을 좀 겪고 고통을 좀 당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당신이 고생을 좀 당하면 업력을 갚아버릴 수 있고 진정하게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으며 영원히 다시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 당신이 인류사회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생활하고, 당신 집에 억만 원이 있으며, 당신의 벼슬이 아무리 높다 해도 몇십 년에 불과함이라, 아주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전생(轉生)할 때, 당신은 빈손으로 왔으며 갈 때도 빈손이다. 당신이 무엇을 갖고 갈 수 있는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후손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다음번에 다시 전생(轉生)할 때에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당신이 그한테 가서 품팔이하고 청소부가 되어도 그는 좋은 낫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신에게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이러하다! 사람은 바로 이 속에 미혹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고 있다.

하면, 특히 다른 공(功)을 연마했던 사람은 무슨 자발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쉬운데 수인(手印)을 아주 멋있게 하는 것 같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마(魔) 역시 이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은 누가 당신에게 준 것인지도 모르므로 당신이 그를 따라 연마하기만 하면 그는 당신의 몸에 그의 것을 넣는데, 당신의 몸은 곧 난잡해진다. 나는 일부 사람들을 보았는데, 보니 이것을 배우고 저것을 배운 것처럼 그 신체 속이 난잡하기 그지없이 무엇이든 다 있어 전혀 수련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연분을 중시한다. 당신이 나를 만나게 된 것 역시 당신의 연분(緣份)이다. 당신이 진짜로 수련하려고 하면 우리는 당신을 철저하게 청리(清理)해 준다.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은 제거하여 당신의 신체를 바로잡고 정화해 주어 유백체(奶白體)상태에 도달하게 하는데, 그런 후에야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공이 나오고 층차를 제고할 수 있다.

제자: 스승님은 많은 법신이 있으므로 사람을 지도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수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까?

앞으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뚫고 들어온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는 즉시 오며 일 초도 안 되어 그것은 곧 온다. 그럼法輪(파룬)은 왜 상관하지 않는가? 당신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 수련함은 매우 엄숙하며 매우 엄숙한 일이다.

내가 중국에서 공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천목이 열린 층차가 비교적 높았다. 천목이 열려도 수련하기가 힘들다. 높고 큰 신선들을 보게 되는데, 다른 공간의 생명체는 아주 크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시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며 높고 커 인류는 그를 신통광대(神通廣大)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제자로 삼을 테니 나를 따라 배우도록 하라.”라고 한다. 사람의 그 마음이 일어나 곧 그를 따라 배우면 바로 망치게 된다. 당신은 그가 더없이 높다고만 보지 말라. 그 역시 삼계(三界)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다만 이 공간에 있지 않음으로 그는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일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마(魔)가 와서 당신을 교란하는데, 나를 따라 배우라, 내가 당신에게 뭘 좀 가르치겠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앉기만

여러분 생각해 보라. 특히 우리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업신여길 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조성했을 때, 당신이 어떤 물질 이익에서 손해를 봤을 때, 내가 보기에 는 그 무슨 나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중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는데,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며 얻으려면 곧 잃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당신이 얻고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잃게끔 강화(強化)하는데, 이것이 우주의 특성이다. 방대한 우주의 일체 물질은 모두 생명이며 일체 물질은 모두眞(眞)·善(善)·忍(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돌·강철·공기 같은 어떠한 물체든지, 인류가 만들어 낸 어떤 제품, 물질도 미시적인 구성은 모두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으로 구성된 물질이다. 이 방대한 우주는 바로眞(眞)·善(善)·忍(忍)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가 우주 중의 일체에 균형을 잡아 준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리고, 욕하며,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며 그가 얻은 일방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속인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정말로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 당신은 손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손해를 보아도 아주 크게 보았다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가 좋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는 얻은 일방에 속하며 그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기에 그는 얻은 셈이므로 잃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고통을 얻었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행복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상대방은 응당 얻어야 한다. 어떻게 얻는가? 당신이 그를 한 방 치고 그에게 한마디 욕을 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고 얼마나 세게 치느냐에 따라 한 덩이 희고도 흰, 상등 하는 수량의 물질이 당신 신체 주위에서 날아가게 된다. 이런 물질을 德(더)라고 하는데 상대방에 떨어트려 준다. 상대방의 몸에 떨어트려 준다. 상대방, 그 역시 사람인지라 그도 이런 이치를 모를 수 있다. 당신이 나를 쳤지 하며 화가 나서 야단이다. 그가 화를 내면 그는 이 德(더)를 되돌려 밀어주는 것과 같다. 그가 다시 그를 맞받아 한 방 치고, 그에게 한마디 욕을 할 때 그는 이 德(더)를 되돌려 던져 준다. 두 사람은 모두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았으며 누구도 얻지 못했다. 우주의 법리(法理)는 공정하다.

만약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음속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 즉, ‘당신이 나를 때리고 욕하지만, 내 마음속은 아주 태연한바, 나는 아무 일로도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수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속

道)하는 사람마저도 그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다. 얻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절반을 수련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功)은 자동으로法輪(파륜)에 의하여 연화(演化)되므로, 오로지 당신의 마음을 닦기만 하면 공이 자라 오를 수 있고, 제고되어 올라올 수 있다. 그는 고급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고급이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주었다고만 보지 말라. 당신이 수련하려고 했기에 불성(佛性)이 표현되어 나온 것이다. 이 한 생각이 나왔기에 당신을 제도하는 것이며 이렇게 한 것으로, 당신이 얻은 것은 매우 진귀하다. 부처 수련은 아주 엄숙한 일로서 우리도 당신이 그에게 화란을 일으키고 그를 망치게 하도록 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다른 것을 섞어서 수련한다면 우리는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 생명 - 고급 생명을 망치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것을 배웠는데 이法輪(파륜)은 이렇듯 큰 위력이 있으면서 그는 왜 상관하지 않았는가?’ 한다. 왜냐하면, 이 우주 중에는 또 한 가지 이치가 있는데, 바로 자신이 구한 것은 자신이 치러야 하는 것으로서, 당신 자신이 가지려 한 것이고, 당신이 사악한 것을 가지려 했기 때문이다. 그 사악한 것은 틈만 있으면 파고드는데, 당신이 갖지

주는 것이다. 지금 어떠한 문(門)도 수련 성취하기가 몹시 어렵게 되었고 상관하는 사람이 없는데 관건은 모두 난잡하게 수련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이 만약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수련할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여 원만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면 어느 한 문(門)에서 수련해도 다 좋은 것으로 바로 이런 이치이다. 왜냐하면, 부처는 바로 사람을 잘 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이 수련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곧 전일해야 한다. 단지 동작만 다른 것을 연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또 다른 문(門)의 경(經)을 읽을 수 없으며 당신의 사상 중에도 그 한 문(門)의 것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의념마저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연공의 많은 것이 의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인데, 당신의 의념이 나옴은 바로 추구인지라 당신이 그것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오게 마련이다. 그럼 당신 몸의 공(功)은 난잡하게 되고法輪(파륜)은 변형되어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당신은 곧 헛되이 수련하게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法輪(파륜)은 너무나도 진귀하다. 당신은 내가 그를 당신에게 주었다고만 보지 말라. 내가 이것을 전하기 전에는 천 년 수도(修

인이기에 나는 당신과 견해를 같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의 도덕표준이 올라온 것은 이미 일반사람을 초월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그를 때릴 때, 그에게 德(덕)을 주는 것이 아닌가? 德(덕)란 이런 물질은 공(功)으로 연화(演化)될 수 있다. 당신의 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德(덕)이 연화(演化)되어 오는 것으로, 우주 중에서 채집한 일부 물질에 당신의 德(덕)을 더해야만 비로소 당신의 공으로 연화(演化)해 낼 수 있다. 당신에게 이 德(덕)이 없으면 당신은 공을 수련해 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때릴 때에 그가 그의 德(덕)을 당신에게 줌으로써 당신은 德(덕)이 증가하여 더 높이 수련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치가 아닌가? 당신이 얻은 것은 이 속인이 당신에게 고통을 만들어 주어 얻은 보상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그가 당신을 때리거나 혹은 당신을 욕하거나 당신에게 어떤 번거로움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당했다. 당신은 고통 중에서 당신 자신의 몸에 가진 업력, 전세(前世)에 빚진 그런 업력이라고 하는 시커먼 물질, 그것 또한 德(덕)로 전화될 것이며, 그것은 또 상응하는 한 몫의 德(덕)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한

속인에게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이다. 당신이 나에게 고통을 줌 만들었지만, 나는 오히려 두 몫의 보상을 받게 된 셈이다.

그러나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일체를 당했을 때, 당신은 그와 견해를 같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아주 태연한바,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욱해도 대꾸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마음속으로 아주 태연할 때, 당신의心性(썬썬)은 수련하여 올라온 것이 아닌가? 만약 그가 당신에게 이 번거로움을 만들어 주지 않고 고통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당신이 거기에 편안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수련되어 올라오고 원하는 대로 높게 수련되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겪는 중에서, 마난 속에서라야 당신은 그 마음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당신은 높은 표준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의心性(썬썬)이 그와 같지 않다면, 당신의心性(썬썬)은 수련되어 올라온 것이 아닌가. 당신은 일거삼득(一舉三得)이다! 그렇다면 연공인으로서 당신은 층차를 제고하여 하루빨리 원만해야 하지 않는가? 당신의心性(썬썬)이 수련되어 올라왔다면 당신의 공도 올라온 것이 아닌

가 정법이고 당신이 그 한 법문(法門)을 진짜로 전수 받을 수 있고 당신이 그 한 법문 중에서 능히 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수련하도록 하라. 하지만 나는 당신이 전일할 것을 권고한다.

나는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부처는 부처의 그런 진정한 모습으로 직접 와서 당신을 제도할 수 없다. 신통을 크게 나타내며 부처가 여기에 앉아서 당신에게 설법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 십악불사(十惡不赦)한 사람도 모두 배울 것인즉 깨달을 것이 없게 된다. 보면 진짜 부처가 여기에 있는데 누가 배우지 않겠는가? 전 인류가 모두 배울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오로지 속인 중으로 전생(轉生)한 사부만이 비로소 가르칠 수 있으며 비로소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 이 속에는 깨달음이란 문제가 있으며 믿고 믿지 않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하지만 법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아무튼, 당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므로 나는 비로소 이 이치를 말했다.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므로 내가 당신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이런 기회와 인연이 있어 여기에 앉아 있으므로 나는 당신에게 알려

않는다고 하는데, 불가의 것이면 다 수련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불가의 선종(禪宗)도 수련하고 밀종도 수련하며 정토(淨土)·화엄종(華嚴宗)·천태종(天台宗)을 모두 수련한다면 당신은 함부로 하는 것이고 제멋대로 하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정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한 문(門)을 틀어쥐고 수련해야만 비로소 원만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한 것은 하나의 이치이다. 당신이 반드시 나 리홍쯔(李洪志)의 이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法輪大法(파룬따파)는 사전(史前) 한 시기에 석가모니 부처의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류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람을 제도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인류문명시기에는 여태껏 전한 적이 없다. 이번 인류가 출현한 후 우리가 이를 처음으로 내놓는데, 아마도 최후 한 차례로 내놓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法輪世界(파룬쓰제)가 있는 것으로 원만을 이룬 제자는法輪世界(파룬쓰제)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나의 법을 수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은 어떠한 법이든 수련할 수 있다. 오로지 그

가? 틀림없다! 이런 하나의 이치가 있다. 즉心性(썬썬)이 얼마나 높으면 공도 그만큼 높다고 한다. 이 사람의心性(썬썬)이 고만큼뿐인데 공만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어떤 수련하는 사람은心性(썬썬)이 나보다도 못하는데 어찌하여 공이 있는가? 그가 이 방면에는 당신만 못하지만, 아마 다른 방면은 당신보다 나올 수 있다. 사람은 수련 중에서 마음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기에 버리지 못한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면 여전히 속인과 같다. 그러나 제거해 없어진 마음은 물론 표현되지 않는다. 수련인으로서 당신이 고통을 받으면 당신은 일거사득(一舉四得)이다.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당신이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일을 찾겠는가?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매를 맞고 욕을 먹었다 하여 화가 나서 야단이며 마음속으로 격분하여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이익을 차지하고 그의 돈을 벌어들였다 하여 그야말로 참지 못한다! 사람은 이런 것을 아주 중하게 여기며 심지어는 파리 대가리만 한 작은 이익마저도 잃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가련한가! 그는 그런

조그마한 공짜를 위해, 공짜를 조금만 얻어도 정말로 기
뻐서 난리인데. 지금 사람은 이러하다. 그는 그가 진정
으로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 德(더)는 왜 이렇듯 진귀한 것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양의 노인들은 모두 德(더)가 있
어야만 복이 있다고 한다. 이 복은 몇 개 면을 포함한다.
즉 큰 벼슬을 하거나, 큰돈을 벌거나, 집이 있고 땅이 있
거나, 행복이 있는 등등으로서 모두 그 德(더)로 바꾸어
온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따라 가며 사람이 죽
으면 그것은 元神(웬선)을 따라가고 당신이 전생(轉
生)하면 그것은 또 당신이 전생함에 따라간다. 德(더)
뿐만이 아니라 흑색물질,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업력, 이
런 업력도 사람의 생명을 따라간다. 이 두 가지 물질은
모두 사람을 따라간다. 과거에 노인들이 말하기를 나쁜
일을 하면 응보를 받는다고 했다. 누가 당신을 응보 받
게 하는가? 누가 당신의 그 빛을 기록해 주는가? 당신에
게 이런 일을 상관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이 德(더), 그것은 당신의 몸에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것으로 내세는 이 德(더)에 달려 있
다. 업력이 많으면 당신의 이 일생은 고생이 많고 병이
많고 재난이 많으며, 德(더)가 많으면 당신 이 일생에

런 성취하겠는가? 어떻게 둘을 수련해 낼 수 있겠는가?
부처는 당신이 이러한 것을 보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
지 않을 것이고 그는 당신의 心性(썬썬)이 좋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인 당신이 불법에
화란(禍亂)을 일으키려고 한다. 여래 부처가 여래 부처
로 수련성취 함에 얼마나 간고하고 얼마나 어려웠겠는
가! 한 여래 부처가 여래로 수련성취 함에 그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서야 여래로 수련성취 되었겠는가! 한 속
인으로서 당신이 그의 것을 개변하고 그의 것에 화란
(禍亂)을 일으키며, 두 가지를 한데 섞어 두 부처가 증
오(證悟)한 것을 난잡하게 하려 하는데, 이것이 그래
불법(佛法)에 화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나 지금의 화상(和尚)과 지금의
인류는 불법을 파괴하면서도 그는 오히려 모르고 있다.
물론 당신이 모른다면 온전히 당신만을 탓할 수는 없다.
당신을 탓하지 않고 당신을 탓하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사람이 제멋대로 불법에 화란(禍
亂)을 일으키게 할 수 없다. 두 문(門)의 불법, 두 여래
부처의 법에 당신이 모두 화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섞어서 수련하기만 하면 얻을
수 없다. 불가의 것만 수련하고 도가의 것은 수련하지

갈 수 있다. 당신이 밀종을 수련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밀종의 신(身)·구(口)·의(意)의 요구에 따라야만 당신은 비로소 대일여래(大日如來)가 주지하는 천국, 그곳으로 수련되어 갈 수 있다. 무엇이든 다 연마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이 정토(淨土)를 수련하면서 아미타불을 외우고 되돌아서 또 선종(禪宗)의 이론을 배운다면 당신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사람의 신체는 하나뿐인데, 신체를 불체(佛體)로, 부처의 신체로 개변하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당신 자신은 하지 못한다. 그것은 부처가 해야 한다. 당신의 신체를 불체로 개변하려면 그것은 대단히 복잡한 일로서 인류의 가장 정밀한 계기보다도 더 복잡하다. 그가 당신의 신체에 넣어 준 한 세트의 것을 기제(機制)라고 한다. 또 당신에게 많고도 많은 원만에 이르게 하는 각종 불법신통(佛法神通) 종자를 넣어주는데, 단전(丹田)의 전(田)에다 묻어 준다. 이 일체는 모두 그 자신의 이 한 문(門)의 것인데, 이래야만 당신은 비로소 그의 이 한 문(門) 중에서 수련할 수 있으며 비로소 그의 불국세계(佛國世界)로 수련되어 갈 수 있다. 만일 전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체는 하나뿐인데, 두개의 부처 세계에 하나인 당신이 어떻게 수

돈이 많고 복이 많으며 벼슬을 크게 한다. 바로 이렇게 조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연공인에게는 이 덕(德)이 더욱 진귀하다. 그것은 공(功)으로 전화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

현대 과학이 이 점을 보아내지 못함은 현대 과학이 이 한층 공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는 어떤 공간형식 중에서 생존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이 한층 공간은 두 가지 물질 입자(粒子)의 중간에 있다. 입자란, 물리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바, 분자·원자·무슨 원자핵·쿼크·중성미자 그것들은 모두 한 층의 입자이며 그것은 더욱 큰 입자를 구성하는 물질원소이다. 우리 사람들은 어느 한 층의 입자 속에 생존하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본 가장 큰 것은 별이며 가장 작은 것은 현미경 하에서 볼 수 있는 분자이다. 사실 우리 사람은 별과 분자 사이의 이 한층 공간 중에 생존하고 있다. 우리가 이 공간을 매우 광활하고, 가없이 넓으며, 더없이 크다고 여긴다. 나는 현대의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우주선이 아무리 높게 난다 해도 그 역시 우리 이 물질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여도 사람의 두뇌를 따르지 못한다. 사람의 두

되는 지금도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과학은 여전히 아주 천박한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인류는 별과 분자 이 두 가지 입자의 중간에 생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자는 원자로 구성된 것인데, 원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은 어떠한 것인가? 현대의 과학자는 다만 원자라는 한 점, 그것의 작은 구조만 인식할 뿐이다. 사실 원자가 존재하는 곳, 그것 역시 한 면(面)이며 이 면(面)으로 구성된 물질 공간 역시 무척 방대하다. 다만 당신이 발견한 것은 한 점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이 한 층차면 중에서 이 공간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거리를 가늠하는 표준은 늘 인류 자신의 현대과학의 이 각도에서 일체를 가늠한다. 당신은 실증과학의 틀과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이 그 공간에 들어가려면 그 공간의 형식에 부합되어야 만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 원자에서 분자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과학이 아는 것은 대략 200만 개 원자를 배열해야 비로소 원자에서 분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가 능히 인식하는 이 거리는 이미 상당히 광활한 것으로 당신은 현존 인류의 실증과학의 틀 안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 원자에서 원자핵에 이르는 중간, 그

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기공 단련을 좀 한다고 해서 부처로 수련 성취될 수 있겠는가? 밀종에서 주문을 외우고 의념을 넣고 수인(手印) 몇 개를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의념(意念)은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소망일 뿐이다. 진정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사부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모두 불가의 것인데, 우리가 염불하고 밀종을 배우면서 또 불가 기공도 배운다면 이는 좋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사람의 인식이지 신(神)은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여래 부처(如來佛), 아미타불(阿彌陀佛)은 어떻게 수련성취 했는가? 그는 자신의 수련방법에 따라 원만(圓滿)을 이룬 것이고 그의 공(功) 역시 자신의 연화(演化) 형식에 따라 그의 세계를 원만하게 했으며, 그 자신이 수련 성취한 것이다. 그의 일체는 모두 그가 수련과정 중에서 형성해 낸 그 자신의 그런 수련형식의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원만(圓滿) 방법을 ‘계(戒)·정(定)·혜(慧)’라고 한다. 4선8정(四禪八定) 등등을 닦으려면 그의 그 수련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한 문(門)을 수련한다면 당신의 공(功) 역시 석가모니 부처가 수련한 공이여야만 당신은 비로소 그의 거기로 수련되어

의해야 한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나는 문제 하나를 더 말하겠다. 우리의 연공은 반드시 전일(專一)해야 한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일부는 이전에 밀종(密宗)을 배웠으며, 일부 사람들은 불교를 믿거나, 또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 천주교를 믿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수련은 반드시 전일(專一)해야 한다고 본다! 왜 전일해야 하는가? 이것은 천만 지당한 진리이다! 지금은 말법 시기로 사람이 수련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주된 원인이다. 몇 가지 원인으로 축성된 것인데, 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다른 것을 뒤섞어 수련한 것이다. 뒤섞어 수련하는 것이 한 가지 주된 원인이다. 당신이 이 공을 연마한다면 당신은 다른 공을 연마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당신에게 알려주는가? “여러가(家)의 장점을 가져온다.”라는 이 설은 속인이 말한 것이며 속인의 기술지식을 구하는 데에서는 이 이치이다. 그러나 수련의 이치는 전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고 한다. 당신이 부처 수련도 하고 도(道)도 닦는다면 아무것도 수련해 내지 못하며 누구도 당신에게 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련은 자신이 하나 공은 사부에게 있기 때문

것은 한 층 공간이 아닌가? 그렇다면 원자핵과 쿼크 사이, 그것은 얼마나 큰 공간적 거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쿼크에서 중성미자까지는? 물론 우리 현재 인류의 과학은 단지 중성미자까지 인식했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 오직 계기로 관찰하여 그것의 존재형식을 알고 있을 뿐이다. 사실 물질의 본원(本源) 물질과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른다!

내가 말한 이것은 가장 간단한 공간의 존재형식이다. 우리 인류의 일체 물질, 당신이 보지 못하는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일체 물질과 우리가 능히 볼 수 있는 물질, 예를 들어 철이라든가·시멘트라든가·동물·식물·물질, 또한, 사람의 신체를 포함하여 모두 분자로 구성(組成)된 것이다. 인류는 바로 분자라는 이 면(面)에서 생존하고 있으며 마치 한 장의 입체화(立體畫)와도 같이 당신은 이 면에서 생존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과학도 요만한 공간 내로 국한되어 그것마저도 돌파하지 못하는데,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다고 하면서 일체 학설을 배척한다. 인류의 기술은 더욱 높은 우주를 인식할 수 없다. 그가 만약 정말로 이 한 층 공간을 돌파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공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형식, 물질이 존재하는 형식, 그 속의 시공(時空) 구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바, 부처만이 비로소 최고의 과학자이다.

나는 천목열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이 눈을 피하여 물건을 보는데, 우리 이 천목으로 본다. 바로 양미간 혹은 도가에서 말하는 산근(山根), 코 뿌리 이곳에 한 갈래 통로를 열어서 직접 당신의 송과체(松果體)로 통하게 한다. 의학에서는 송과체라고 부르고, 도가의 연공인은 그것을 니환궁(泥丸宮)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이 송과체의 전반부에 사람 눈의 모든 조직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음을 의학자들은 발견했다. 현대 의학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이 속에 눈이 있는가? 그들은 퇴화한 눈이라고 여기며 여전히 진화론으로 이런 것을 해석한다. 사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혀 퇴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육안을 피하여 물건을 볼 때, 물론 이 육안이 잘 수련되었을 때는 육안으로도 꿰뚫을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공능을 갖춘 것으로 불법은 끝이 없다. 일반적으로 눈을 피하여, 분자로 구성된 눈을 피하여 본다면 이 공간을 꿰뚫고 다른 공간의 광경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치이다. 그러므로 수련하는 사람은 속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어

제를 받는다. 당신이 나는 내려가야겠다고 하면서 오로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곧 내려오게 되며, 당신이 일어나겠다고 하면 곧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더욱 두려워할 때는 또 집착심이므로 떨어지기가 쉽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 한 사람이 나한으로 수련 성취하여 기빠하자 그는 떨어졌다. 왜 그런가? 기쁨이란, 사람의 이런 기빠하는 것 역시 정(情)의 체현이고 역시 집착이다. 한 수련 성취한 사람으로서 는 당신이 나를 욕하고 듣기 거북한 말을 해도 나는 꼬떡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좋다고 해도 나는 역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며, 당신이 나를 나쁘다고 해도 나는 역시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가 기빠하자 그는 떨어졌다. 나한으로 수련성취 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다시 이어서 수련하자고 다짐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또 나한으로 수련성취 되었다. 이번에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기빠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기빠하기만 하면 또 떨어지게 된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기빠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하자 그는 또 떨어져 내려왔다. 이 두려워하는 것 역시 집착심이기 때문이다. 부처 수련은 아주 엄숙한 일로서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문제에 주

은 뜰 수 있어도 뜨지 못하게 된다. 연공은 무위(無爲)를 말하고 공(空)을 말하기에 유심(有心) 수련하여 무심(無心)으로 얻어야 하는데, 유심수련(有心修煉) 무심득공(無心得功)이다. 모두 이런 하나의 상태를 품고 수련한다. 날마다 늘 부처가 될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강대한 집착이다. 이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수련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당신이 속인 중에서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집착심이다. 이것을 추구하고 저것을 추구하는데, 당신이 추구할수록 그것은 더욱 없게 된다. 오로지 당신이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만 그것이 비로소 있게 되므로 여러분은 이 이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속인 중에서 당신이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추구할 수 있고 당신은 배울 수 있어 노력 후에는 얻을 수도 있겠지만, 속인을 초월한 것은 오로지 버려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는다(無求而自得).’고 한다.

당신이 말한 두려워하는 이 문제는 사실 두려울 것이 없다. 뗀다면 그만이다. 당시 당신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었고 가르칠 속인 중의 사부가 없었을 뿐이다. 뜨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사람의 의념의 통

편 속인은 그의 일생 중에서 우연히 어렵פות하게 일부 불명확한 현상을 보게 된다. 예컨대 한 사람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는 없어졌거나 혹은 어떤 것을 보았거나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럼 아마 어렵פות이 다른 공간의 상황을 정말로 보았을 수 있고 들었을 수도 있다. 사람의 천목이 그다지 심하게 봉폐되지 않았거나 혹은 귀가 심하게 봉폐되지 않았으면 우연히 다른 공간의 소리를 듣거나 혹은 다른 공간의 일부 현상을 볼 수 있다.

나는 방금 인류가 생존하는 이 공간을 이야기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이 별은 가장 큰 입자, 가장 큰 물질이 아니다. 별 외에도 더욱 큰 물질이 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의 눈은 극 미시적으로 이미 상당히 미시적인 물질을 보아낼 수 있고 거시적으로 이미 상당히 크고 거시적인 물질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는 마지막까지도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보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말하기를,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라고 했다. 이 우주는 얼마나 방대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얼마나 복잡하겠는가,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은바, 우리의 이 공간, 이 형식만 해도 그것은 무척 복잡한 것이다! 이런 공간형식 외에 또 종향(縱向)으로 존재하는 공간

형식이 있으며 게다가 중양 공간 속에는 또 아주 많은 단원세계(單元世界)가 있는 것으로 대단히 복잡하다. 내가 말하는 이 단원세계는 바로 천국 등등을 가리킨 것으로 매 공간에는 또 부동한 시공이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원자로 구성된 이 공간, 그것의 시간이 우리 이쪽의 분자로 구성된 공간의 시간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것의 공간개념, 그것의 거리는 우리의 것과 역시 같지 않으며 일체는 모두 변화가 발생했다. 그 외계인의 비행접시(UFO), 그것은 어찌하여 오감에, 종적을 남기지 않고 이처럼 빨리 나는가? 바로 그것이 다른 공간에서 가기 때문인데 이렇게 간단하다. 인류가 현재 자신의 과학 각도에서 우주 중의 불분명한 현상을 인식하거나 이 방법으로 수련, 혹은 종교를 연구한다면 영원히 명확하게 연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유방법을 개변해야 하며 다른 각도에서 인식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은 오로지 지금의 유럽 사람이 발견하고 발명한 이른바 이 실증과학뿐만이 아니며 단지 이 한 갈래의 길뿐만이 아닌 것으로 또 다른 길이 있었다. 지구에서 발견되고 역사에 이미 있었던 오랜 문명이 발전했던 과정은 모두 생명물질과 우주에 대한 다른 인식의 길이었다. 중국 옛적의 과학은 다른 길을 걸었다. 물론 중국의

졌기 때문이다. 연공인이 뜨려면 아주 쉬운 것이나 현재의 과학자는 해석하지 못한다. 사실 사람 신체의 모든 맥이 전부 통하면 그는 곧 뜰 수 있다. 그가 뜨지 않았지만, 그가 길을 걸어도 나는 것 같고 산에 오르거나 계단을 올라가도 모두 힘들지 않다. 이것이 바로 맥이 통한 것인데, 바로 이리하다. 元神(웬선)이 나왔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元神(웬선)이 쉽게 몸을 떠나며 어떤 사람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 몸을 떠난 후 法輪(파룬)이 당신의 몸을 뜨게끔 이끌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주 빨랐다. 당신이 감히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당신에게 당시 다만 그만큼의 높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처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다. 사실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하는 사람이 뜨는 것은 아주 많은데 아주 정상적이다. 수련하는 사람이 수련에 들어가기만 하면 곧 맥이 통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 대주천이 통하기만 하면 그때 사람은 뜰 수 있다.

내가 말했지만, 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당부하는데, 누구도 '내가 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당신에게 추구하는 관념이 생기기만 하면 당신

제자: 말씀드리기 매우 죄송스럽지만,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놓쳐버릴까 봐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두 이 문제를 저에게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이런 기회는 실로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하루 밤 12시가 넘었을 때, 저는 밀종(密宗)의 방법에 따라 가부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밀종을 수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가 선회하듯 회전하고 있었는데,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재빨리 이렇게 공중에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높게 뜬 후, 머리 정수리로 나왔습니다. 정수리로 나올 때 좀 심하게 아팠고, 아픔을 느낄 때 저는 더욱 높이 상승했는데, 그때 저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마 나의 영혼이 떠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으며, 저는 저의 신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낮에 제가 방안에 앉아 있었는데 은색 광환, 은색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5분 후에 없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法輪(파룬)을 보았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비록 당신이 예전에 밀종을 연마했지만, 작용을 일으키지 못했다. 왜 당신이法輪(파룬)을 볼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당신이 수련하기 전부터 이미 당신을 책임

이 문화, 그것은 관련된 층차가 아주 높았으나 사람의 도덕이 떨어짐에 따라 억제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유전되어 내려오지 못했다. 그러나 서양의 가장 낮은 이런 과학형식은 오히려 사람에게 남겨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방금 말했지만, 사람은 우리 이 물질공간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사람이 됨이 목적이 아니다. 만약 사람이 더 미끄러져 내려간다면 휘멸, 철저한 휘멸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을 형신전멸(形神全滅)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두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사람을 제도하려고 함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막다른 지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을 사람의 고통 속에서 천국으로 제도해 가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고통 문제를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의 사람이 부처를 믿는 기점(基點)과 과거 옛날 사람이 부처를 믿는 기점은 같지 않다. 과거의 사람이 부처를 믿음은, 부처를 모시고 부처를 수련하며 부처를 공경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어떤 마음도 없었다. 지금의 사람이 부처를 믿는 것은 부처에게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구하는 그 마음은 부처로 말한다면 가장 더럽고 가장 더러운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 부처는 당신을

제도하려 하지만, 당신은 속인 중의 안일과 행복을 구한다. 당신을, 속인 중에서 정말로 당신으로 하여금 아주 행복하고도 편안하게 살게끔 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부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지금 바로 부처인데, 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사람이 생생세세에 나쁜 짓을 하여 빚진 업력을 갚지 않고 행복하기만 비는데, 그것이 어찌 빌어서 되겠는가? 당신은 오로지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수련해야만 비로소 빚진 업력을 없앨 수 있다. 당신이 부처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적게 해야만 장래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 생명이 더욱 길게 연속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전생(轉生)할 때 뇌를 씻은 후, 하나의 좋지 못한 환경으로 전생하여 물결 따라 흐르듯이 휩쓸린다면 휘멸의 끝자락에 이를지도 모른다.

방금 나는, 석가모니 부처가 이야기한 “이 우주는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석가모니 부처, 그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보았는가? 그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학설을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과 같은 물질신체를 가진

악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감수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며 머리를 아주 길게 기른 사람이 아, 아, 하고 힘껏 고함치는데, TV에서 추어올리기만 하면 곧 인기가수가 된다. 일체는 모두 부패하고 있으며 인류의 무엇이든 모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이 외에 또 아주 많은 현상이 있는데, 두렵기 그지없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보아내지 못한다. 인류가 종교를 대하는 인식도 달라졌다. 그는 정치로 되어 버렸으며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부처를 욕한다. 그 요리 메뉴에는 또 무슨 “불도장(佛跳牆)”이 있다.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현재 인류사회는 어찌 되어 버린 것인가? 당신이 수련하지 않으면 당신은 모르지만, 수련하여 뒤돌아보면 깜짝 놀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인류가 이런 정도로 부패하였는데, 그것은 단독적인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일정한 공간 중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많은 물질, 많은 생명이 법에서 빛나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너무 깊게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알리라 생각한다.

우 많은 나쁜 짓을 했다. 무슨 마피아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성 문란 등등은 모두 인간의 표준이 아니다. 부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당신의 정부가 허용하고 법률이 허용하나, 그것은 사람 자신이 허용하는 것이지 천리(天理)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당신이 보라. 파는 장난감이랑 그린 그림들은 모두 제멋대로 만들고 제멋대로 칠해 놓는데, 이것이 곧 작품이다. 무엇인가? 누구도 똑똑히 말하지 못한다. 일체 사람의 관념은 모두 역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 무더기 쓰레기를 거기에 쌓아 놓으면 바로 대 조각가의 작품이 된다. 전반 사회의 현상이 모두 이러하다. 백화점의 장난감은 심지어 대변모양까지도 장난감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 예전에는 그 인형 아기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잘 샀는데 지금은 해골이라든가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든가 요귀 악마까지도 장난감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아주 잘 팔리는데 착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기 좋아한다. 이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가. 사람의 관념은 심하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예전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목소리가 아름답고 음악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으며, 몸매라든가 자세가 멋질수록 좋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음

사람, 다른 공간 중에 생존하는 사람 말고도 우리 인류 사회와 같은 이런 세계가 3천 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은하계 중에 이런 별이 3천 개 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또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는 한 알의 모래 속에 삼천대 천세계가 들어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알의 모래 속에 3천 개의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이러한 것과 같은 공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곳 사람의 크기 비례를 당신은 현대과학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그는 다른 하나의 시공(時空)형식 중에 생존하고 있다.

방금 내가 한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 지구는 아주 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가 원자핵을 둘러싸고 운행하는 것이 지구가 태양을 에워싸고 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형식이다. 만약 당신이 전자를 지구만큼 이렇게 크게 확대하여 볼 수 있다면, 당신이 보라. 그 위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위에 어떠한 물질이 존재하는가? 석가모니 부처는 작기에는 안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정도로 보았는가? 물질의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 그는 이미 아주 미시적으로 보았다. 그는 한 알의 모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 알의 작은 모래 속에 삼

천대천세계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 만약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것이 정말이라면, 그 한 알 모래 속의 그 세계 속에 또 강·하천·호수·바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강·하천·호수·바닷가에 역시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한 알 모래 속에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모래알의 모래 속에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래로 캐내려 감에, 석가모니 부처는 끝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그는 작기로는 안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질의 가장 본원(本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 물론 이 물질의 가장 본원적인 것을 이전에 우리가 말한 적이 있으므로 나는 여기에서 더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높고 너무 깊게 말하면, 더욱이 많은 사람이 중국말을 그다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인데, 나는 이 면의 것을 더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만큼만 말하겠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수련 중에, 법을 배우는 중에 생긴 일부 문제를 제출하면 내가 해답해 주겠다.

제자: 우리는 『전법륜』 1, 2권을 보았는데 그 속에 있는 한마디 말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밀종(密宗)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책

에서 보살과 여래 부처의 층차가 지금 겁난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부: 이 문제를 아주 높게 물었다. 당신이 더욱 높은 데로 수련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간단하고 개괄적으로만 말해 주겠다. 사람의 이 한 층 법이 영험하지 않음은, 인류사회의 도덕이 모두 떨어지고 사람 마음속의 도덕관념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정념(正念)이 없으면 법이 영험하지 않게 된다. 인류의 사회법이 영험하지 않으면 인류는 곧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만약 이 법이 인류 사회에서만 영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층 공간에서도 빛나갔다면, 물질생명은 곧 아래로 떨어진다. 그가 좋지 못하므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매우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타난다면 단지 인류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예컨대 대법이 관통하여 내려오는데 위에서 약간 빛나가기만 하면 아래에서는 이미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 마치 총을 쏘는 것과 같이 당신이 약간만 빼돌게 겨냥해도 그 탄알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 왜 아래에서는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인류사회는 몹시 두렵게 변했다! 무슨 마약을 피운다던가, 마약을 판다던가, 사람은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적지 않은 사람이 때